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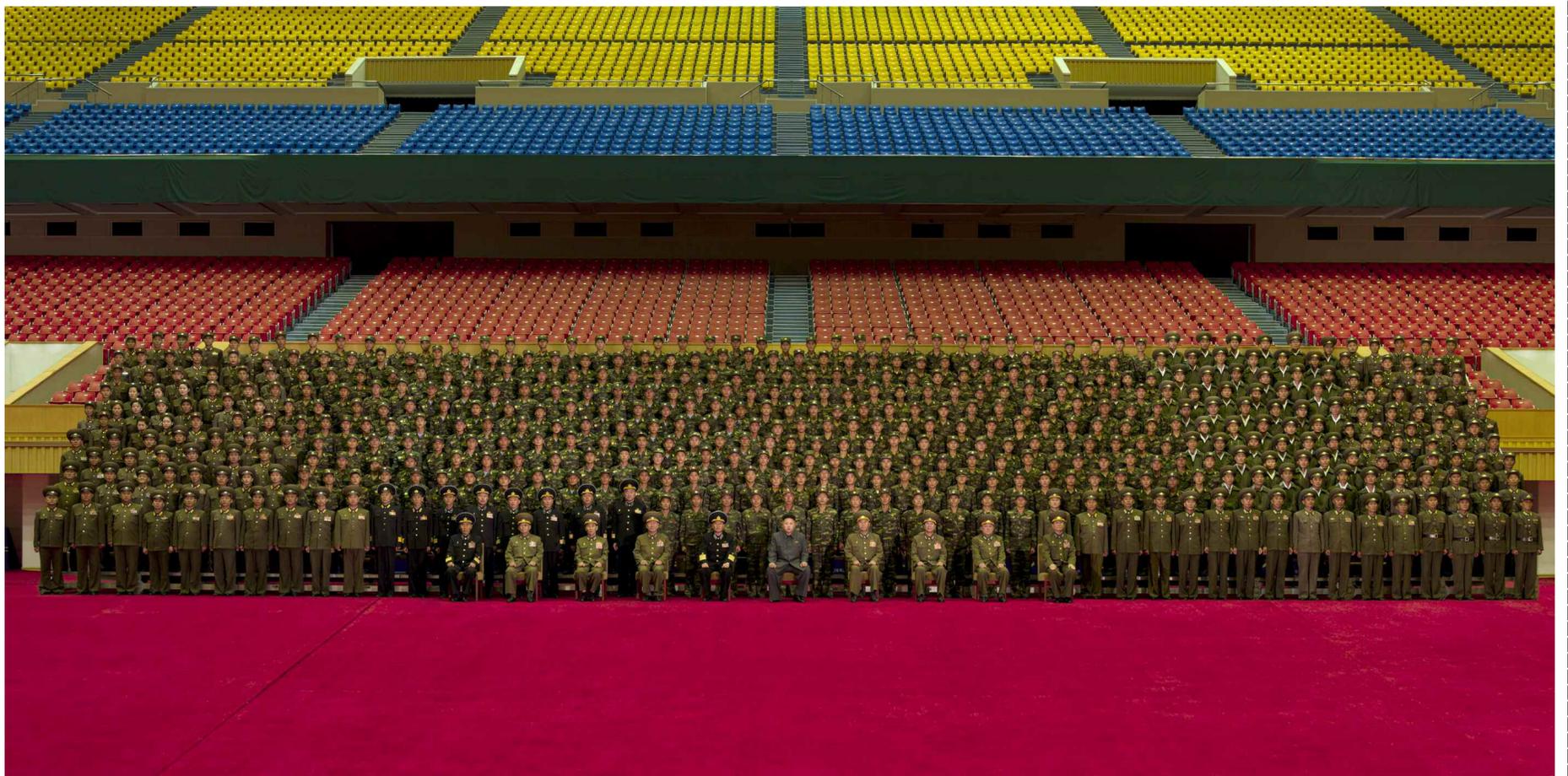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2호 [루게 제24655호] 주제 103 (2014)년 8월 30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육전병구분대들의 강하 및 대상물타격실동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육전병구분대들의 강하 및 대상물타격실동훈련에 참가한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조선인민군 육전병구분대들의 강하 및 대상물타격실동훈련에서 자랑스런 공군을 세운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 제162군부대, 제252군부대관하 구분대들의 육전병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858군부대의 비행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야 참가자들의 가슴은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전제 참가자들이 앞으로는 훈련을 싸움맛이 나게 강도높이 벌림으로써 그 어떤 전투임무도 자립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일당백의 필멸자는 싸움군들로 역세게 준비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의도대로 전투정지훈련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부강번영과 사회주의조국을 혁명의 총대로 굳건히 사수해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탈리아 여러 정당출신 국회의원 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이탈리아 여러 정당출신 국회의원대표단이 선물을 드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드리는 선물을 이탈리아-조선친선의 최고루배 위원장인 이탈리아공화국 국회 상원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드리는 선물을 이탈리아-조선친선의 최고루배 위원장인 이탈리아공화국 국회 상원의

김정일애국주의는 가장 숭고하고 특출한 애국주의 국제사회계가 격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주의는 국제사회의 찬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만민신문 《더 맨마 헤랄드》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영도자께서 지난 세기 말 나라앞에 가로놓인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을 수호하신 선군정정은 누구나 따르배워야 할 삶의 교과서라고 언급하였다.

애국주의는 본질적내용으로 보나 커다란 생활력으로 보나 오직 그의 존엄과 결부시킴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특출한 애국주의라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연구보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에 대한 연구토론회와 독보회가 선군절에 즈음하여 20일 로므니아사회주의선량당과 나이제라이선군정치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연구보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연구보급

[조선중앙통신]

세계정치사에 특기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선군령장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민족을 수호하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옹호하는 가장 위력하고 정의로운 정치이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선군정치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신 정의의 수호자의 불같은 한생을 돌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령도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시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으로부터 54년전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부영수제 105방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긴날은 우리 인민뿐 아니라 인류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이다.

장군인 인류역사에는 명장들의 군사적업적에 대하여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처럼 장장 수십년동안 정의와 진리를 가장 철저히 수호하고 빛날이 있는 정치철학을 내놓으시고 한 나라, 한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이처럼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린 강철의 명장은 있어본적 없었다.

선군정치는 오직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그의 선군혁명령도의 백승의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총대를 앞세우신 선군혁명령도의 백승만을 안아오시였다. 그이께서는 1960년대

와 1970년대에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으로 우리 나라에서 위급한 사태가 조성되었을 때 철의 신병과 배향으로 적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시였다.

1968년 1월 미제의 무장간첩선 《부에블로》호사건, 1969년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1976년 8월 판문점사건때 미제 첩락자들이 군사적소동을 일으키며 정세를 전쟁집경으로 몰아갔으나 도발자들은 백두의 선군령장들의 담대한 배향과 기상, 뛰어난 지략없이 두손을 들고 제풀에 물러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느때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김정일동지는 어릴 때부터 총포란 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며 성장하였으며 최고사령부 작전대대에서 나와 함께 《부에블로》호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주요한 군사적사변들을 다루면서 주체적이며 명철한 립기응변의 전법들을 터득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 세기 두차례의 참혹한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는 새 세계에는 철학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을 한결같이 념원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9.11사건을 계기로 세계를 《반테러전》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음으로써 평화에 대한 인류의 념원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였다.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를 무참히 짓밟은 미국은 저들의 《반테러전》에 합세하지 않는 나라는 《적》으로, 찬성하는 나라는 《동맹자》로 세계를 이편저편으로 갈라놓았다.

힘찬능주의에 사로잡힌 제국주의자들은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군사적강권을 마구 휘둘렀다. 전략적우승지, 자원지대에 위치한 나라들에 대한 공포연한 군사적침공이 감행되고 내정간섭, 제제가 만무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업모에 걸음 씌는 일부 나라들은 지난날 있을 수 있는 전략책동에 대처하여 품을 들여 마련한 군사장비들을 제 손으로 파괴해버리거나 국가의 전략적계획을 포기하는 어리석은짓까지 하였다.

더욱 기고만강해진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을 어찌하려고 정치외교적압력과 경제적봉쇄, 무력공갈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렸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슨 《방과포》를 제창하며 우리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 버리려고 발광하였다.

미국방성의 책략가들은 새로운 조선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작전안을 짜놓았다.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언제 불이 달리는가는 시간문제라고 평하는 보도들이 쏟아져나왔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조선을 지켜보았다.

《아메리카제국이 조선반도에선 총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의 개시나 세계대멸절전쟁의 개시를 의미하며 그 전쟁이 가져다주는 피해는 전지구적인 피해로 될것이다. 군사평론가들은 조선반도에선 전쟁의 불이 붙는다면 전세계적으로 20조US\$의 경제손실과 500여개의 큰 도시의 파괴, 10억이상의 희생과 전지구의 사막화라는 무서운 4대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바라는 한 진보적인사의 우려만이 아니였다.

하나 국제사회가 우려하던 세번째 세계대전이나 세계대멸절전쟁의 포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적인 침략전쟁책동을 짓부시고 평화를 수호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동북아시아지역은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수 없는 위험성이 가장 짙은 지역이었지만 평화는 유지되였다.

신물은 언제든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사회주의위업을 더욱 전진시키려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교훈은 군대를 강화하는가 강화하지 못하는가 하는것이 사회주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라는것을 보여주시고도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의 위력한 포성을 울리시며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지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시고 정의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끄시였다.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제국주의의 노예로 사느냐 하는 엄혹한 시기 우리 인민은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들어 사회주의수호전에 두려워 함대음한뜻으로 굳게 뚫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의 반동들의 악

랄한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였다.

정평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평화와 정의의 수호자이시며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의 상징이시다.

오늘 국제사회에서는 선군정치를 따라배우기 위한 시대적흐름이 날로 거세어지고있다. 수많은 선군사상연구조직들이 출현하였다. 제국주의의상인 미국에서까지 선군사상연구조직이 출현한것은 선군정치의 감화력을 잘 보여주고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물론 유럽나라들에서도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토론회가 진행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세계의 그 어떤 동맹에도 끄떡하지 않고 배심든든히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총진군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계승발전되고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시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기려는 그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표시로 보인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은동지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사실을 믿고있다.

세계는 젊음으로 약동하는 우리 공화국이 선군으로 어떻게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리 현 도

조국해방 69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방송들이 특집하고 기념보도를 하였다.

로스앤젤레스 《세이퍼블 뉴스》 15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조선해방, 력사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1945년 8월 15일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력사의 전환점이었다, 나라가 해방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일제의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존엄로운 삶을 누릴수 있었다고 전하였다.

신문은 지난 세기 초엽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가 중세기적인 특유성으로 나라만이 아니라 민족자체를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데 대해 폭로하고 이처럼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였던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해방은 단지 민족재생뿐 아니라 노예로부터 주인으로의 운명적인 전환을 안아온 력사사건이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15일제의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을 해방하신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당장건국위업, 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데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포크》 12일부는 《해방의 은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선 조선민족을 해방시켜주신분은 바로 김정일동지이시라고 하면

서 라도제국주의동맹결성, 주체사상창시, 조국광복회창립 등 그의 업적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께서 민족의 태양, 해방의 구세주로 우러르면서 그이께서 이끄시는 항일전쟁에 관한 력적 기록을 실었다. 마침내 조선인민의 자주적해방위업은 성취되었다.

해방의 은인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세기를 이어가며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을것이다.

14일 기내 국내, 국제방송은 조선해방은 인민들의 자주적명예척과 나라의 부강번영의 전환점을 마련해주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국방위업장에서 심혈발전을 시킨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그에 의해 밝혀진 지도리인로의 운명적인 전환을 안아온 력사사건이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15일제의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을 해방하신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당장건국위업, 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데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포크》 12일부는 《해방의 은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선 조선민족을 해방시켜주신분은 바로 김정일동지이시라고 하면

[조선중앙통신]

자주적근위병개천과 부강번영의 전환점

《선군령장과 사회주의조선》

선군정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특집하였다.

로스앤젤레스 《브이포크》 22일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전보를 모시고 《선군령장과 사회주의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끌어오신 사회주의조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인 영도밑에 승승장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도 감히 어찌 못하는 자주의 강국,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불패의 보루로 위용번창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조선반도의 정세는 매우 엄혹하였다.

미국은 조선의 평화적위성발사를 《장거리미사일발사》로

여러 나라 신문, 방송 특집

몰아붙이면서 년초부터 조선에 대한 압살소동에 미쳐달뛰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실제적이며 강도 높음은 국가적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였다.

조선은 나라의 자주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다종화된 전쟁적책의 우수한 성능을 파시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아우성을 쳤다.

미국은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침공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성된 험악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

군 전력로케트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시고 화력타격계획을 최종으로 비준하시였다.

군사적위협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며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받아나가는 김정은동지의 담력과 배향은 미국은 기가 꺾이었고 추종세력들은 얼이 나갔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 문명국건설에서 대박약을 이룩하도록 이끄시였다.

참으로 2013년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승리를 거둔 공지와 영광의 해였다.

세계는 이에 대하여 말그대로 기적이라고,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의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하

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방글라데시신문들인 《데일리 포크》, 《블리프》 16일부는 《선군의 위력》, 《조선의 선군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들은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령도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캄보자카 라디오 방송과 아파라 TV 및 라디오방송은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령도로 사회주의조선의 무공변영을 위한 억년기들을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한해에도 몇차례씩 대규모적으로 벌여지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합동군사연습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판을 자아내고있다.

로스나사회주의선명당은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최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들은 최정통에 달하였으며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절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국은 《연체적》이라는 간판밑에 남조선당국과 아합하여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으며 수많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계단식으로 격화시키고있다. 저들의 전쟁장비들은 《양어적》이고 나라의 방위를 위한 조선의 미사일들은 《위협적》이며 《도발적》이라고 하는것은 강도조러리이다.

로스앤젤레스 《파트리오트》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국이 견제없이 방대한 무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상태에서 벌여지는 전쟁연습이 위험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조선반도에 과연 군사적위협이 북에서 남으로 가해지고있단 말인가?

현실은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북의 위협에 대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요란히 떠들고있

국제사회계가 요구

조선반도에서의 위협은 남에서 오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영국의 정보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실제 핵전쟁으로 번져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핵전쟁도발책동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은 그들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버리지 않는 조선인민의 절친지원수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브라질자유주국당 부위원장장은 다음과 같은 글을 투고하였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저들이 벌리는 군사연습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을 감추기 위해 《연체적》이며 《양어적》인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미국의 말장난일뿐이다.

조선의 분란은 미국의 세계적패권전략의 산물이다. 북과 남의 통일을 버리지 않는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저들의 무력을 계속 끌어들이고있다.

남조선에서 미군무력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와 억측을 끝장내며 북남사이의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조선의 평화적이며 자주적인 통일이 이룩될

의 무력을 다른 나라에 주둔시키지도 않고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조선이 평화의 《위협》에 되는것인가?

나이에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합동군사연습들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참화는 헤아릴수 없을것이다.

현대적인 핵력추진단들이 다동원될 이 전쟁에서 미국은 무사치 못할것이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정치일부위원회는 미제와 남조선국회총장들의 침략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2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이 공식 적용되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는데 대하여 까발리고 이에 당장 중지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아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달뛰는것이 아니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지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수상 제재에 대처하여 식료품생산을 늘일데 대해 강조

로스앤젤레스 트리프리 메드베제브가 22일 농업발전회의에서 로씨야에 대처하여 국내 식료품생산을 늘일데 대해 강조하였다.

대처하여 식료품생산을 늘일데 대해 강조

그는 나라의 식료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현재의 생산량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식료품생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적극 내밀어 상정해줄 것을 국내산식료품이 차고넘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무인기 격추

이란무장력이 최근 자기 나라 영공을 침범한 이스라엘무인기를 격추하였다.

이란이 이스라엘군위대는 스텔스기를 갖춘 이스라엘의 간첩무인기가 미사일사격을 받고 격추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이 무인기는 나란트에 있는 우라니움공장과 가까이 접근하다가 이란의 반항공체계에 걸려들어 분편을 당했다고 한다.

경제적협조를 강화해나갈 립장 천명

이란부대통령이 22일 외국방문 파견에 한 발에서 지역나라들과의 경제적협조를 강화해나갈 정부의

림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분야에서 지역나라들과의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이란의 대외정책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하였다.

이란은 나노기술을 비롯한 주요 과학기술부문에선 이룩한 성과들에 기초하여 대외교류를 발전시켜 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실패작으로 락인

에스모니아텔레비전방송이 25일 미국의 대외정책을 실패작으로 락인하였다.

방송은 한 종합대학 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이 세계 모든 나라들에 대해 중등에 있던 동유럽에 있던 편제없이 《민주주의》수출이라는 판매업 《리념》

영 영 형 편 약 화

일본백화점협회는 19일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7월에 전국의 백화점들에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것은 연속 4개월째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한편 2.4분기에 주요기계품주요문양은 그 전분기에 비해

10.4% 줄어졌다.

일본백화점협회가 20일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7월에 전국의 일용품소매업체들에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줄어들어 연속 4개월째의 감소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을 사용하는 유통업

명 성원국들에서 6월에 전제생산이 그 전달에 비해 0.7% 떨어졌다.

에스빠냐에서는 은행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있다.

18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6월에 전국의 은행들에서 불량대부액이 1858억 6200만€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이란에서 현 이란년도의 첫 4개월동안에 2만 6000t 이상의 플라스틱을 수출하였다. 이것은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1700t 더 늘어난것이다 한다.

18일 이 나라의 이스나통신이 이에 대해 밝혔다.

탄자니아에서

탄자니아의 므만자주에서 국

세균이나 비루스를 제거하는 빛축매대일 개발

빛축매제의 재료는 산화티탄이라고 한다.

빛을 쬐어주면 산화티탄은 공기중의 산소 혹은 수분과 반응하여 활성산소를 생성하게 되는 데 이것은 세균이나 비루스 등을 분해한다.

현재 식당이나 병원, 위생실

반 마 약 투 쟁

알바니아경찰이 최근 나라의 북부지역에서 반마약작전을 벌였다. 작전과정에 경찰은 비법적으로 재배되던 약 4만 6000그루의 마약작물을 제거하였다고 한다.

벨라리아에서도 마약반대 투쟁에 힘을 쏟고있다.

22일 이 나라 사법당국은 올해에 들어 현재까지 약 500kg의 헤로인이 적발입수되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2009년이래 가장 많은 양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아랍의 봄》이 가져다준 파국적후과

리비아사태가 복잡해지고 있다.

수많은 사상자와 피난민이 발생하고 종족간, 분파간 대립과 모순, 군사적충돌이 더욱 심해지고있다.

오늘 리비아는 정치적혼란과 불안, 테러와 보복의 만무상으로 화해하였다.

분파세력들사이엔 권력과 원유를 장악하기 위한 무장충돌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이 나라의 수도와 벨라지에서는 류혈적인 군사적폭력사태가 확대되어 국제적우환거리로 되고있다.

최근시기 많은 나라들이 리비아에서 확대되는 내전으로 하여 이 나라 주제 대사관들을 잠정 폐쇄하고 외교관들을 철수시켰으며 자국민들을 소개시키거나 리비아에 대한 여행을 삼가할것을 호소하고있다.

그러면 리비아의 정치정세가 왜 이 지경에 이르러 되었는가. 결국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떠들고 있는 《민주주의》책동의 산물이다.

이론백화점협회는 19일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7월에 전국의 백화점들에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것은 연속 4개월째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한편 2.4분기에 주요기계품주요문양은 그 전분기에 비해

가지에 있는 미국형사관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그로 하여 대사를 포함한 4명의 미국인이 살해되었다.

미국은 사건발생직후 레오본 자들을 제거하겠다고 하면서 이중해에 군함들을 급히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리비아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였다.

미국은 이를 구실로 리비아의 정치정세를 《안정》시키려는 미명하에 반정부세력들을 규합하고 특수부대를 투입하였으나 현재 각종 군사혼란을 주면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제공해주고있다.

이렇게 미국은 앞에서는 《평화의 사도》로 행세하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탄포를 꾸고 있다.

미국은 속심은 어떻게 하나 이 나라를 분열시켜놓고 저들끼리 싸우게 하여 총망하는 자기들의 의사와 요구에 순종하게 만들자는것이다.

리비아는 현유가 풍부한 나

라이다. 미국은 이로 하여 이 나라를 절대로 놓지 않으려 하고있다.

말라겐에도 리비아의 벨라지에서는 민병대비행이 중무기와 포를, 지어는 비행기를 이용한 대규모적인 전투가 벌어져 수십명이 죽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반미시위를 벌리면서 미국을 규탄해 격렬해나갔다.

에집트, 리비아, 튀니지, 예멘, 이라크, 이란 등 나라들은 물론 유럽에서도 이슬람교도들의 반미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반미투쟁은 이슬람교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정책적책 때문이다.

미국이 퍼뜨린 《자유와 민주주의》에 현혹되었던 리비아의 현실에서 사람들은 심각한 교훈을 찾았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본사기자 라명성



인디아에서 큰 불 피해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핵발전이 형광등빛과 같은것이 비치지만 해도 자체로 세균이나 비루스까지 제거하면서 깨끗해지는 새로운 빛축매대일을 개발하였다.

티일에 빛축매제를 입히는 기술로 만들어진 티일은 냄새의 원인으로 되는 세균이나 비루스를 99.9%까지 제거할수 있다.